

# 총련 기관지에 나타나는

## ‘치마·저고리’의 표상\*

—1950년대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

吳恩英\*\*

(e-mail : decency5@hanmail.net)

### <目次>

- |                      |                          |
|----------------------|--------------------------|
| 1. 머리말               | 3.3 ‘어머니’의 표상            |
| 2. 북한의 문맹퇴치와 남녀평등법   | 4. 총련 기관지가 전하는 ‘조선옷’의 의미 |
| 3. ‘여성동맹’과 ‘어머니’의 역할 | 5. 재일조선인 작품 속의 ‘치마·저고리’  |
| 3.1.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역할 | 6. 맺음말                   |
| 3.2. 재일조선인의 ‘어머니’    |                          |

キーワード：在日朝鮮人(Korean Residents in Japan)、総連の機関紙 (bulletin of *Chongryon*)、  
チマ・チョゴリ(Chima·jeogori)、母(mother)、女性同盟(Women's League)

## 1. 머리말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통의상을 ‘치마·저고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말 그대로 ‘치마’와 ‘저고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고 왜 ‘치마·저고리’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

\*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JP19K13151.

\*\* 大阪経済法科大学 アジア研究所 객원연구원 재일조선인문학·문화

람 또한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치마·저고리’의 표상(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チマ・チョゴリ」の表象)」(『表現研究』, 2009.10)을 쓴 바가 있다. 이것은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조선옷에 대한 규제와 ‘조선옷’에서 ‘치마·저고리’로 바뀐 호칭, 그리고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치마·저고리’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치마·저고리’는 조선학교 여학생 제복과도 깊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한동현의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치마·저고리 제복의 민족지)』(双風舎, 2006)는 조선학교의 제복에 대해 역사적인 검증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영화 『우리학교(ウリハッキョ)』(2006)는 김명준 감독이 3년 동안(2003-200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머물면서 촬영한 것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할머니에 의하면 전후에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 많아 남학생은 학교를 지킨다는 이유로 민족의상이 아닌 일반적인 제복을 입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치마·저고리 제복’을 입으면 긍지를 느낀다는 여학생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여성만 ‘치마·저고리’를 입었던 이유, 그리고 왜 여성의 의복 명칭인 ‘치마·저고리’가 대표적인 한국(조선)의 전통의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지 궁금증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기관지를 통해 재일조선인문학의 양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총련 기관지에 조선옷에 대한 기사가 많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마·저고리’에 좀 더 깊게 고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신문<sup>1)</sup>은 민단계와 총련계 두 가지가 있다. 당시 민단보다는 총련이 조직 자체가 강했고 총 2면에서 4면으로 ‘문화’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었으며 발행하는 신문 부수도 훨씬 많았다. 총련 기관지<sup>2)</sup> 문화면에는 조선옷 특히 여성이 입고 있는 ‘치마·저고리’의 그림이나 사진과 조선옷의 아름다움이나 입는 방법 등에 대한 기사

1) 중립 입장인 『통일일보』는 1959년도부터 발행.

2) 같은 시기의 민단 기관지에 ‘조선옷’ 또는 ‘한복’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입어야 한다거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 자주 게재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이 입은 조선옷에 ‘민족’이나 ‘조국’을 이미지화시키는 동시에 조선 옷을 입은 여성의 ‘여자다움’ 또는 ‘아름다움’이 중요시되고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반면 조선옷을 통해 ‘남자다움’을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바꿔 말하면 조선옷(치마·저고리)은 마치 ‘여성’만이 입는 옷처럼 의무화·정착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옷을 입은 여성이 부각되어 가는 과정을 총련 기관지<sup>3)</sup>를 통해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또 기관지에 게재된 작품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북한의 문맹퇴치와 남녀평등법

『조선신보』는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이 발행하는 신문으로 북한의 제도, 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이 되면서 토지개혁(1946.3), 노동법령(1946.6), 남녀평등권(1946.7), 중요산업 국유화(1946.8)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교육개혁을 하는 데 물질적 토대와 여러 조건을 조성할 수가 있게 된다. 특히 토지개혁은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건설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특권계급인 자본가, 지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노동자나 농민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sup>4)</sup> 그리고 한국전쟁 후

3) 총련 기관지는 『민중신문』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해방신문』(1946-1956년), 『조선민보』(1957-1960년), 『조선신보』(1961년-현재)로 개제되어 발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상 신문명은 생략하고 연도만 기재한다.  
 제일조선인의 기관지에 대해서는 줄지 「『조선민보』(1958년 1월-1959년 2월)에 나타난 제일조선인 문학의 양상」(『제일조선인의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 박문사, 2018)과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様相—『解放新聞』(1952年9月-1953年12月)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第78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8) 등을 참조.

4) 신효숙(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pp.80-88.

에 피해 복구와 건설 과정에서 ‘남녀평등권’과 ‘문맹퇴치운동’으로 인해 여성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추진되고 이전까지 가부장제로 사회진출이 억압되었던 여성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

문학에서도 ‘여성’을 작품의 소재로 해서 부각시키기도 했다. 1951년 3월에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조옥희(6.25 때 인민유격대로 활동하다 1950년 11월에 사망)는 임순득의 단편소설 「趙玉姬」(『문학예술』, 1951.6)와 리북명의 중편소설 『조선의 딸』(1952.10-12), 그리고 문학수의 유화 「영웅 조옥희」(1952) 등을 통해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녀가 사망 후 바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공화국 영웅’이 된 것은 공화국 영웅 칭호 제정 후 배출된 첫 여성 영웅이라는 점에서 문단의 즉각적인 관심<sup>5)</sup>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순득의 「趙玉姬」는 총련 기관지 『해방신문』에도 총13회(1952.9.6.-12.5)에 걸쳐 연재가 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중으로 조국을 위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제일조선인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을 사회적 공동체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맹퇴치운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방 후부터 1948년 3월까지 212만 85명이 문맹을 벗어났다고 한다. 그 중 남자가 509,995명, 여자가 1,610,090<sup>6)</sup>명이라는 숫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여성 비문해자가 많았던 만큼 교육은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문맹퇴치 사업은 사회주의적 근대 여성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출발이며<sup>7)</sup>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 해 ‘남녀평등권’ 발령으로 인해 여성들에게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5) 김은정(2016.4)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제6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6) 김창호(1990) 『조선교육사 3』 사회과학출판사, p.244.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이향규의 「해방직후 북한의 문해운동」(『한국 문해 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2001년)를 참조.

7) 리경혜(1990) 『여성문제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p.35.

(박영자의 「북한의 근대 여성 주체의 형성, 1945-47: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여성』 분석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46집, 2004년 6월)에서 재인용)

촉구한 정책이라 할 수가 있겠다.

교육은 재일조선인 여성에게도 강조되었다. 조선어를 모르는 것은 ‘여성운동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공화국 국민의 영예를’ 해치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녀동에서는 그간 전국적으로 생활학교운동을 전개하고 문맹퇴치와 의식을’(1953.5.19) 높이는 데에 교육이 집중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김민의 ‘퐁트」 「부부싸움」 (1953.7.23) 을 보면 생활학교가 주로 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초보적 국어, 산수, 일어, 역사 등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하지만 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부장제, 여성의 오래된 관습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자도, 하는 자도 학교에 익숙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다. 1955년 이전에는 생활학교에서 생활의 괴로움, 내직, 가정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장소로서 치중된 나머지 국어, 역사 등 구체적 학습내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시간씩이 아니라 두, 세시간씩 배웁시다’, ‘지도원도 「연설」 보다 「학습」에 중점을’(1955.5.10) 두자고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기관지를 통해 엿볼 수가 있다.

각지에 생활학교가 생기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서 배우는 여성들이 늘어갔다. ‘배움을 통하여서만 녀성의 힘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과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녀성의 지위를’(1958.7.12) 높이려는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남녀평등’을 내세우고 가부장제를 없애자고 하면서도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에 사회적인 지위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순된 사회현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또는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기사가 반복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1956년부터 전개되는 천리마운동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했으며 여성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설치하기 시작해 1950년대 후반에 급속하게 증가<sup>8)</sup>했다. 여성의 복지는 점점 개선되어 ‘매년 2주일간의 유급 휴가’와 ‘산전(産前), 산후에는 77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임신 6개월부터는 로동 시간을 단축’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모성 휴양, 부모 휴양소’(1962.3.8)를 설치해 주었다. 이러한 정책과 발전 과정은 기관지에 매년 3월에 하나의 명절처럼 기념하는 ‘국제부녀절’과 매년 7월에 남녀평등법을 기념해서 「부인문제특집」, 「녀성의 힘」 같은 기사와 함께 ‘여성 특집호’가 발행되어 재일조선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재일조선인은 총련 기관지를 통해 알게 된 ‘남녀평등권’, 그리고 ‘무상 치료’와 ‘완전한 사회 보장을 갖추고 있는’ ‘북반부의 이야기’(리금옥의 수필 「희망을 안겨 준 내 조국」, 1964.7.30)를 일본인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기도 한다.

북한과 총련의 ‘문맹퇴치운동’과 ‘남녀평등법’에 의해 여성이 배우는 과정에서 민족성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은 높아졌다. 이것은 북한 그리고 총련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이며 이전까지 가부장제로 사회진출이 억압되었던 여성에게도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재일조선인 여성은 ‘여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옷을 입게 되는 동기부여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다.

### 3. ‘여성동맹’과 ‘어머니’의 역할

#### 3.1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역할

북한과 총련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여맹’의 역할이 컸다. 1945년 11월

8) 이태영(1988) 『북한여성』 실천문학사, p.225

1958년 7월26일자에 의하면 1957년 8월 현재 조선 여성들 중에는 69명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롯하여 12,299명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과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 주권 기관과 사회 단체 간부로서 일하고 있고 교육 부문에서는 18,442명, 이외에도 과학, 문학, 예술,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1958년에 ‘공화국 내각은 여성 로력의 비율을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 평균 60% 이상으로 기타 인민경제 각 부문에 30%이상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제84호 결정을 채택하였다’(1958.07.29).

18일에 창립한 북한의 민주여성총동맹(民主女性總同盟)은 1946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에 가입했다. 그 후 1951년 1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남북조선여성동맹과 통합·개편되어 조선민주녀성동맹(朝鮮民主女性同盟)이라는 명칭으로 개칭<sup>9)</sup>했다. 일본에서는 1946년 3월에 재일본조선인연맹 산하에 ‘부녀부’를 설치하고 1947년 10월 12일에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약칭은 여성동맹 또는 여맹)이 결성되었다. 여성동맹 제2회 전체대회 중 문화활동에서 ‘迷信打破, 冠婚葬祭를 簡素化할 것, 衛生的生活을 向上시킬 것과 幹部養成, 再教育等’(1948.10.12·15)이 강조되었다.

북한에서는 1953년 9월 14일부로 ‘모성(母性) 유아(幼兒) 보호사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전시 하의 어려운 시기에 임산부와 유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했고 금년도 고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강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위생시설과 탁아소를 창설할 것을 규정했다. 북한의 ‘모성’보호는 재일조선인에게도 전해진다. 1953년도에는 ‘민족 교육과 문맹퇴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린이들은 ‘공화국의 훌륭한 미래의 국민이며 또한 조선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 주인공’이니 어린이를 기르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책임은 그야말로 중대’(1953.6.13)하다고 전하고 있다. 1953년대 ‘가정교육’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것이 ‘청소년을 갖은 어머니들에게 항상 세심한 관심을’(1958.7.12)처럼 아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의 무게가 점점 ‘어머니’로 이행되고 있었다. 그 만큼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젊은 모성들을 녀맹<sup>10)</sup> 조직에 집결시키고’(1958.7.22) 있었다.

여맹에 참여하며 보람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수기를 비롯해, 시, 수필 등 작품으로도 표현되고 있었다. 맥립의 시 「가족 회의」(‘총련회의 갔다오신

9) 이태영(1988) 『북한여성』 실천문화사, pp.165-168.

10) 여성동맹 가입대상은 18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이지만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원이 30세까지이므로 실제적으로 30세 이상의 미혼 여성과 결혼한 여성이 맹원이 된다(전계재, pp.167-168).

아버지가 싱글벙글/ 녀맹회의 다녀오신 어머니도 싱글벙글/ 저녁밥상 둘러싸고 가족회의 벌어진네', 1958.9.27)처럼 아버지만이 아닌 어머니도 총련에 관련된 일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영철의 연재소설 「탄광부락」(1958.9-11)에서도 여맹의 활동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총련의 해당 지부 간부들이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탄광 사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고 여맹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맹의 맹원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한다기 보다는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조련(1945-1949) 산하의 '부녀부'의 활동<sup>11)</sup>처럼 여맹의 역할은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국이 한창인 시기에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재일조선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함북도 내 녀성들은 녀맹 회의를 열고 《재일동포들의 살림 준비는 녀성들의 힘으로!》라는 구호를'(1960.3.9) 내세우며 준비를 하는 모습은 총련 산하의 여맹처럼 남성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 3.2 재일조선인의 '어머니'

여맹에서는 공화국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갖아야 하고 『조선녀성』과 『조선민보』를 읽을 수 있도록 문맹을 없애야(1958.5.29) 하며 조국의 여성들을 따라 재일조선인 여성들도 '모성'을 중심으로 낡은 사상과 인습을 없애야(1958.6.14) 하고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여성', '어머니'의 교육과 '여성생활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58년 7월 3일에 실린 사설 「녀성들 속에서 계몽교양사업을 더 한층 강화하자!」에는 총련이 결성된 후에 총련의 지도

11) 김영에 의하면 여성단체의 하나인 「아라카와 부녀부(荒川婦女部)」는 주로 선두에 서는 남성 활동가를 위해 후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역할로서 「오니기리부대(おにぎ)部隊)」로 불렸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상위단체를 지지하는 「후방부대(後方部隊)」로서 「부녀부」 활동은 남편을 지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 역할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金英(1994.9) 「第二次大戦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 『1993年度 東京女性財團女性事業年次報告書』財団法人東京女性財團, p.79).





〈그림1〉

아래 여성들의 운동이 이전보다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유일한 단체인 ‘재일조선녀맹’은 ‘문맹 퇴치를 위하여 강습회, 야간 학교, 생활 학교’를 개설하는 등 ‘교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가정일과 병행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이다. 〈그림1〉 ‘밖에서는 선진적인데……’ ‘집안에서는 봉건 폭군……’(1959.7.2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성 또한 조선의 관습, 가부장제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아내가 배운다는 것, 조직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참여한다는 것에 남편들은 여전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의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도 일본에서도 여맹은 초기에 문맹퇴치를 비롯한 ‘계몽교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남녀평등권’을 전개하는 이면에 ‘모성’의 역할은 커져간다. 아이들의 교육을 비롯해서 위생관련, 가정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글의 내용도 ‘어머니’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림2〉

1960년 6월 6일부터 8월5일까지 연재 형식으로 「가정교양」이 게재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그 대상이 ‘남성’도 포함된 ‘부모’인 글도 있지만 대부분 〈그림2〉처럼 조선옷을 입은 ‘여성’, ‘부인’ ‘주부’,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다. 박종상의 「아이들 교육은 부모의 의식에 달려 있다 조선 민족

으로서의 자각을 튼튼히 갖고 한 어머니의 이야기」(1962.2.8) 같은 수기를 봐도 제목은 ‘부모’이지만 부제처럼 ‘부’가 결여된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교육에 의해 자신들의 염원은 ‘자기 나라의 자주 독립과 여성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는’(1958.9.9) 것이라고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결성한 시기<sup>12)</sup>는 다르겠지만 오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맥립의 시 「교사 증축의 싹」 등을 보면(‘우리 학교의 어머니들은/ 교사 증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어머니회를 결성하고/ 오늘 체육제전을 계기로/ 라무네와 과자 장사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1958.12.6) ‘어머니회’가 형성되었다는 엿볼 수가 있다. 자녀들을 위해 활동하는 ‘어머니회’와 여맹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1961년에 북한에서 열린 ‘조선어머니대회’를 본받아 1962년에 니이가타에서 ‘재일조선인어머니대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1961년 11월 16일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조선어머니대회’<sup>13)</sup>에서 ‘아이들을 사회주의적인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그 사상을 익혀야 한다’(1962.3.10)는 김일성의 교시를 따라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이 중심이 되어 1962년 ‘3·8 국제 부녀절’에 니이가타에서 ‘재일조선인어머니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를 위해 각 지역에서 모범 어머니운동을 전개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과 관련된 기사와 시, 수필 등은 일본어판 『朝鮮時報』에서도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표제 「在日朝鮮人母親大会に参加して 祖国と子供らのために 未来に生きる新しい朝鮮の婦人像」(『朝鮮時報』, 1962.3.24)처럼 이 대회를 통해 조국과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2) 1957년 10월 12일자를 보면 산타마(三多摩)에 어머니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3) 1955년 ‘3·8 국제 부녀절’을 맞이해서 7월에 세계어머니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대회의 취지는 당시 ‘원자폭탄’을 반대운동이 일어난 시기로 어린이들을 모든 재해로부터 지키자는 것이었다 (1955년 3월 8일자). 어머니대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부인상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어린이의 첫째 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 아이(1966.5.14)의 발전이 달려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세치야마가 언급한 것처럼 1961년에 열린 제1회 전국어머니대회는 김일성을 절대적인 ‘국부(國父)’로 하는 가부장제적 국가로 전환해 간다는 의미에서 ‘탈사회주의’적인 젠더관<sup>14)</sup>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어머니대회’가 공식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북한에서는 해방 후 봉건사회를 탈피하고 ‘남녀평등법’을 실행하면서 친족결함을 약화시키고 개 개인의 가부장제를 해체시키는 대신 나라 전체를 하나의 가부장제적 질서 아래에 두고<sup>15)</sup> 있다. 즉 1950년대에 들어서 남녀평등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 ‘전국어머니대회’에 의해 가부장제로 돌아가 ‘여성’에게 ‘어머니’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 3.3 ‘어머니’의 표상

총련 기관지에는 기사나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어머니’를 소재로 한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 이 ‘어머니’는 「조선의 어머니들에게」(허남기의 시, 1953.7.23),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딸은-조국 전선 편지를 받들고-」(남시우의 시, 1958.11.15), 「공민의 의무감으로 양육하여 어머니 조국의 품안으로!」(1959.4.11)처럼 ‘조국’과 결부시키고 있다. 안 룡만의 시 「어머니 당에 드리는 노래」<sup>16)</sup>(1961.10.10)에서는 어머니를 당에 비유하기도 하고 김민의 수필

14) 瀬地山角(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 勁草書房, p.137.

15) 전계서, pp.285-286.

16) 당은 돌 없는 나의 어머니(중략)/ 어머니 당은 오늘도 부른다.(중략)/ 나는 영광스런 당의 아들(중략)/ 당이여, 지금 가슴에 부르면/ 어머니 품 같이 따사로운 이름...

「어머니의 마음」(1958.8.16)에서는 7명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를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정백운이 열흘 동안 오사카에서 체류하면서 취재활동한 ‘루포」 「오사카이카이노(大阪生野)」(1962.3.22)를 보면 그는 ‘《대중 속에 들어 가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그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수령의 말씀 그대로 사실 대중이야말로 우리 창작 활동의 어머니며 그 토대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는 모든 영역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김민희의 「조선의 어머니들」(1960.9.7), 윤세평의 「女性和 文学 古典文学에 반영된 조선 여성의 도덕적 품성」(1962.7, 총3회)은 문학 속의 인물에 비유하며 가부장적인 형태 속의 여성상에 대한 글이다. 윤세평은 『춘향전』, 『금오신화』 등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 여성의 전통적인 강의성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조선의 우수한 딸인 조옥희에게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조선 여성들의 참을성이 많고 부드럽고 강의한 성격과 희생적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3〉



〈그림4〉

이 부른다(Родина-мать зовёт!)」<sup>17)</sup>처럼 세계2차 대전 시기에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더 러시아’라는 우의적 여성상<sup>18)</sup>과 오버랩되

기사나 수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3〉(곽홍모가 그린 포스터, 1959.9.28)에서 알 수가 있듯이 북한으로 귀국하는 동포를 ‘어머니’, ‘조국’이 맞아주는 것이다. ‘조국’과 ‘어머니’를 연관시키는 움직임은 Т оидзе Ираклий Моисеевич의 포스터(〈그림4〉) 「어머니 조국

17) <http://43419.tilda.ws/page1941061.html>(검색일:2019.07.06)

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국민은 우리 공산주의자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지만, 어머니 같은(어머니인) 러시아를 위해서는 싸운다’<sup>19)</sup>는 스탈린의 이야기처럼 북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어머니’를 전면에 내걸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더 러시아’상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통합을 추진하듯이 다음 제4장에서 다루는 ‘조선옷’을 입은 ‘여성’, ‘어머니’를 애국심을 촉진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조선옷,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김일성체제가 확립하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혈통주의적인 논리를 도입해서 나라를 하나의 가족에 의제한 가부장제적인 국가로 전환해 가는<sup>20)</sup> 과정에서 프로파간다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

#### 4. 총련 기관지가 전하는 ‘조선옷’의 의미

전쟁 피해 복구와 조국건설이 한창인 공화국의 여성을 본받기 위해 재일조선인 여성은 북한과 총련 그리고 여맹의 지침을 따르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그녀들이 입고 있는 ‘조선옷’이다. 기관지에는 ‘조선옷’, 남성이 입고 있는 ‘바지·저고리’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반면 여성이 입고 있는 ‘치마·저고리’에 대한 기사는 점점 늘고 이것을 다루는 지면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남성’, ‘부성’의 역할은 점점 ‘부재’화되어 가는 반면 ‘여성’, ‘어머니’의 역할은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옷’을 통해 ‘여성’, ‘어머니’

18) 前田(2014.3) 「ロシアの戦争記念碑における兵士と母親イメージ——国民統合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 『地域研究』 京都大学地域研究統合情報センター, p.39.

19) マーティン・メイリア(1997) 『ソヴェトの悲劇 下巻 ロシアにおける社会主義の歴史 1917~1991』 草思社, p.33.

20) 韓東賢(2017) 「全国オモニ大会」に見る北朝鮮の家父長制の変遷」 『ジェンダーとセクシュアリティで見る東アジア』 勁草書房, p.140.

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각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조선옷은 1950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입게 된 것도 아니다. 식민지기에 조선만이 아닌 일본에서도 조선옷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협화회」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식민지기 당시에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식민지기에 일본 내에서 조선옷 복장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층과 부녀자층이 오랜 습관과 유교사상에 의해 조선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내지생활로 유도하기 위해 먼저 지도 대상이 된 것은 ‘부인’이었고 전국적으로 중년 이하의 부인에게 전부 일본옷을 착용하도록 지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옷을 소지하고 있어도 조선 관습<sup>21)</sup>을 고집하는 연장자에 의해 꾸중을 듣거나 부모의 권유로 조선옷을 입는 경우도 많았고 저항을 우려해 지도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기<sup>22)</sup> 때문에 조선옷 착용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초반의 총련 기관지 문화면<sup>23)</sup>을 보면 ‘조선옷’을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전철의 네컷 만화(1950년대부터 기관지에 연재)에서도 조선옷을 입고 있는 연령층은 대부분 노년층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1950년대 후반에 젊은 부인들이 조선의복에 관심이 높아진 것에 주목된 것은 노년층은 이전부터 조선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맹에서 ‘젊은 모성들’을 집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7년도에 여맹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중에는 ‘조선의복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룡택의 시 「곰보 할머니」(‘녀맹 위원장 곰보 할머니/ 조선 치마 휘날리며’, 1958.9.20)나 조선인의 모임에 조선옷을 착용하고 간다는 기사, 그리고 사진<sup>24)</sup>을 통해서 여맹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조선 여성’으로서 옷차

21) 1956년 3월 8일자 「녀성과 迷信」을 보면 제일조선여성들 사이에서 미신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 이것을 비롯한 낡은 유습을 타파하자는 글이 반복되며 게재되고 있는 것처럼 노년층을 비롯해 조선의 관습을 고집하는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22) 줄지 (2009.10) 「在日朝鮮人文學における「チマ・チョゴリ」の表象」(『表現研究』表現学会)를 참조.

23) 1948년도 문화면에는 도자기, 침성대 등이 그려져 있었다.

림, 즉 조선옷 착용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여성의 옷차림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말하는데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선 치마」(1957.4.13), 「여름철의 여자옷」(1958.4.26)이라는 표제로 해서 입는 방법, 손질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조선여성답게 양전한 옷차림’(1962.5.4)을 하자라는 점이다. 「여름철의 여자옷」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즘 젊은 부인들 속에서 조선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조선옷을 입은 부인들의 모습은 ‘동포들의 모인 자리면 의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경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면서 옷감의 종류와 가격 등이 적혀 있다. 조선옷은 양복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적당히 개조해서 입을 수도 있어 경제적이란 것이다.

그리고 총련 기관지에 ‘남녀평등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여성특집호’가 발행되며 민족성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57년도부터 북한에서 교육지원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 귀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총련을 비롯해 여맹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여맹의 맹원들은 특히 ‘젊은 모성들’은 ‘조선의 여성’답게, 그리고 애국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솔선해서 조선옷을 착용하려 했을 것이다.



<그림5>

이러한 영향은 ‘치마·저고리 제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총련 기관지 1960년 3월 2일자에 ‘치마·저고리 제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과 「재일 동포 녀성들도 많이 입게 된 아름다운 조선의복」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중·고급학교에서 ‘학생들의

24) 1958년 7월 15일자에 새로 건설된 고층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행복한 평양 시민의 모습……」)에 어느 한 가족의 모습이 비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와 딸은 조선옷(치마, 저고리)을 입고 있다.

자발적인 요구에 의하여 조선의복을 제 1 교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치마·저고리' 착용의 시작은 총련의 결정이나 학교의 교칙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닌 당시 제복이었던 셀러복을 싫어하는 학생이나 민족성을 착의에 의해 표현하고 싶었던 학생, 또는 조선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민족을 배우고, 그 경험에 의해서 여학생들에게 치마·저고리 착용을 권장한 여성 교원 등이 실천한 것<sup>25)</sup>으로 보고 있다. 조선학교에서 조직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조선풍의 의복을 고안해서 학교제복으로 자발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상기의 북한과 총련, 그리고 여맹의 활동이 없었다면 젊은 부인들의 조선옷 착용도 '치마·저고리 제복' 착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여맹은 조선옷 착용을 지향했고 여맹에 속해 있는 여성은 대부분 '어머니'이고 교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중 조선 옷을 입는 계층(중·고급학교들에서 제1교복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학생들은 제외)은 중년이 현저히 많은데 이것은 잠재적인 중년 여성의 민족적 각성과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조선 여성'이라고 자각하고<sup>26)</sup>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딸, 여학생 또한 그 지향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귀국운동이 진행되는 1959년 전후로 민족성은 이전보다 더욱 고양된 상태였고 민족교육에 의해 민족성을 자각하게 되는 조선학교에서도 그러한 영향은 결코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호칭도 이전부터 입었던 조선옷을 여성들이 입음으로써 '조선옷'보다는 '치마·저고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그것이 정착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옷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2년 3월 8일에 니이가타에서 열린 '재일조선인어머니대회'가 아닐까 한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어머니, 여교사, 재일조선여맹 활동가와 열성자, 민단, 중립층 부인

25) 韓東賢(2006)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 双風舎.

26) 조선옷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온 식구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남편의 협력은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편이 아내가 조선옷을 입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1962.7.12).





〈그림6〉

들 7천백22명이 참가해서 회장은 가지각색의 치마·저고리(조선옷) (『朝鮮時報』, 1962.3.10)로 가득찼다. 8일 아침에 귀국선에서 내린 공화국 적십자회의 김주영을 비롯해 대표단을 부인들이 맞이했다. 김단장은 ‘여러분은 치마·저고리(조선옷)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풍습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은 조선부인으로서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朝鮮時報』, 1962.3.24)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조선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재일조선인 여

성이 그것도 일본에서 한 곳에 모였다면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 여성의 ‘조선옷’에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957년 10월 12일자에 「사진을 통하여 본 녀맹 10년간 발자취」에 ‘미제의 원폭반입 음모를 배격하는 녀성들의 시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시위는 1955년 7월에 세계어머니대회가 열렸던 시기로 추정되는데 사진에 담겨 있는 여성은 조선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조선옷에 대한 글은 없었지만 1962년 7월 12일자 「조국애의 표현인 조선 옷의 생활화 미제 생활 양식 배격코 조선 옷 애용하는 재일 조선 녀성들의 생활과 의식」에서 여성의 조선옷 착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미제 생활 양식을 배격한다는 것은 정신 생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조선옷 입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천리마 시대의 기상에 상응하게 생활하며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우면서도 검박하고 깨끗하면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움직임에 재일조선인 여성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 문화를 동경하는 사상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조선옷 착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의 ‘조선옷’, ‘바지·저고리’는 언급되지 않은 채 ‘부재’화되고 있다. 오로지 여성의 ‘조선옷’을 통해 ‘모성’, ‘아름다움’, ‘민족성’, ‘애국심’을 시각화해

가는 것이다. 여성의 조선옷 착용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 남성의 조선옷 착용은 배제된 상태에서 여성의 조선옷에만 이데올로기화되고 있었다.

## 5. 재일조선인 작품 속의 ‘치마·저고리’

조선옷, ‘치마·저고리’는 시나 수필, 소설<sup>27)</sup> 등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소재로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에 전철의 「치마·저고리 이야기」, 량우직의 「저고리」 등이 연달아 게재되고 있어 당시에 조선옷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철의 「チマ・チョゴリの話(치마·저고리 이야기)」 (『朝鮮時報』, 1962.9.1)는 ‘김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기념일’ 행사 전날에 치마·저고리 입기를 주저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이다. 아내가 주저하는 이유는 화려한 저고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끄러서였다. ‘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의 옷이 압도적으로 평판이 좋고 ‘마치 화려한 무대에서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감탄시키는 의상이라며 아내에게 입으라고 권한다. 하지만 ‘나’에게 ‘저고리’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해방 전 소학교 2, 3학년 무렵에 담임 교사에 의해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을 알게 된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항의를 한 이후부터 ‘저고리’를 원망했었다.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치마·저고리를 자랑스러워한다. 여맹(여성동맹)에서는 “축제일에는 치마·저고리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아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솔직한 감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바지·저고리’를 입어야겠다

27) 김학영의 「착미」(1971),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인」(1972), 김창생의 『이카이노 발 코리안 가루타』(1999), 이정자의 『봉선화의 노래』(2003) 등을 통해 재일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조선옷에 대한 이미지를 엿볼 수가 있다.

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수필에서 ‘남성’ 또는 ‘남편’은 조선옷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듯 그것을 통하여 민족성을 자각하고<sup>28)</sup>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량우직의 「저고리」(『조선신보』, 1964.12, 총4회)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여학생의 ‘저고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연재소설이다. 강창주 교원은 역에서 리정순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수학여행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리정순 집을 방문했었다. 정순 할머니는 저고리를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한다. 강창주 교원은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해서 저고리를 준비할테니 내일 정순을 꼭 보내 달라고 부탁한다. 수학여행 당일, 강창주 교원은 아내가 자신의 옷을 고쳐 준 저고리를 들고 와서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저고리를 입은 정순과 할머니가 역에도착했다. 정순의 저고리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입었던 저고리로 할머니가 고쳐 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저고리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소년단 분단회’에서 한 달 전부터 수학여행을 갈 때에 여학생은 저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에게만 조선옷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착된 것처럼 ‘저고리’는 남녀 모두의 윗옷을 나타내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옷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철의 「치마·저고리 이야기」, 량우직의 「저고리」에 여성의 조선옷을 시각화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여성에게만 조선옷을 입어야 한다는 암묵의 압박, 그리고 조직의 조선옷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이 두 작품과 대조적으로 김병두의 「바지와 저고리」(『조선신보』, 1964.11, 총4회)는 남성의 조선옷, 제목 그대로 ‘바지와 저고리’에 대해 그린 작품이다. ‘그’는 ‘어머니 조국’에서 보내 주신 귀국선이 기다리는 니이가타로 향하는 열차에

28) 줄저(2019.5) 「재일조선인문학의 양상—『조선시보(朝鮮時報)』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제81집, pp.201-202.

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본다. 30년 전에 북해도 탄광을 향하는 기차 속에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청년이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낫다고 하며 기차에서 뛰어 내렸다. 청년을 향해 일본인이 총으로 쏘았다. 그는 청년처럼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서투른 일본어, 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도망가도 곧 잡힐 것이다.

그는 새로운 바지, 저고리를 살 여유가 없었다. 설날에 분회 의회가 있을 때에는 바지, 저고리를 입었다. 또 심신이 힘들 때에는 바지, 저고리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 귀국하는 그를 위해 분회에서 환송회가 열렸다. 동포들에게 선물로 바지, 저고리를 받았다. 그가 감격한 것은 새로운 옷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국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새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니이가타로 달리는 기차에서 험 옷은 과거, 슬픔, 아픔이 담겨있는 것이고 새 옷은 미래, 희망, 행복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그’가 바라보는 ‘바지·저고리’는 여성에게 ‘조선옷’이 의무화되어 있는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그’의 인생, 귀국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나 슬로건에 의한 착용이 아니다. ‘지난날의 바지, 저고리가 천대와 멸시의 전주곡을 알렸다면 오늘의 새옷은 희망과 영예의 대교향악을 의미’하는 대상, 귀국을 앞둔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가까운 것이다.

당시 기관지에 조선옷을 다룬 여성 작가<sup>29)</sup>에 의한 수필이나 소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수기나 투고(리경숙 「조선 옷에 대한 나의 다짐」, 1962.7.28) 등을 보면 어머니를 본받아 자신도 입어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서 민족성을 자각하거나 긍지를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조선옷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그것을 사명감처럼 생각한다. 반면 남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남성의 조선옷 착용은 규칙이나 슬로건 같은 압박으로 인한 착용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착용이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조선옷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족성을 결부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9) 김창생(『이카노노발 코리안 가루타』, 1999), 이정자(『봉선화의 노래』, 2003) 등 여성 작가들은 본인이 ‘치마·저고리’를 직접 입은 느낌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 6. 맺음말

북한의 남녀평등법,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조국 건설을 위해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세는 총련 기관지를 통해 재일조선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총련 산하의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은 문맹퇴치운동을 비롯해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여성’, ‘어머니’에게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했다. 남녀평등법으로 인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 반면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미래의 공화국의 국민이 될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가부장제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여성’, ‘어머니’에게는 ‘조선옷’ 착용이라는 의무도 부여되고 있었다. 식민지기에도 일본에서 착용했던 일상적인 조선옷에 ‘조국’과 ‘민족성’을 결부시킨다. 이것은 북한, 총련, 그리고 여맹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젊은 모성들’이 여맹에 참가하고 여맹을 통하여 민족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선옷,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게 된다. 이것을 ‘여성’은 사명감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옷’을 입은 ‘어머니’는 재일조선인과 북한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매체 역할로서,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이 조선옷을 착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조선옷 착용 비율은 상당히 낮았고 남성에게 조선옷 착용을 의무화시키려 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대부분의 남성은 단지 여성의 조선옷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민족성’, ‘금지’, ‘조국’을 느끼고 느끼려 한다. 기관지의 문화(문학)면에서도 ‘저고리를 입은 남성’에 대한 표현은 드물고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는 여성과 조국(조선)을 연상시켜 그 이미지가 정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련 기관지(1950년대-1960년대)에는 ‘아버지’, ‘부성’은 ‘부재’화되어 가는 가운데 ‘어머니’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표상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1차자료〉 『해방신문』 『조선민보』 『조선신보』 『朝鮮總連』 『朝鮮時報』
- 〈논문, 단행본 등〉
- 김은정(2016)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 김창호(1990) 『조선교육사 3』 사회과학출판사, p.244.
- 박영자(2004) 「북한의 근대 여성 주체의 형성, 1945-47: 『김일성저작집』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46집.
- 신효숙(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pp.80-88.
- 이태영(1988) 『북한여성』 실천문학사, pp.165-166.
- 오은영(2019) 「재일조선인문학의 양상—『조선시보(朝鮮時報)』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제81집, pp.189-209.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81.201905.189>.)
- 吳恩英 (2009)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チマ・チョゴリ」の表象」 『表現研究』表現学会
- 金英(1994) 「第二次大戦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 『1993年度 東京女性財団女性事業年次報告書』財団法人東京女性財団, p.79.
- 瀬地山角(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勁草書房.
- 韓東賢(2006)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双風舎.
- \_\_\_\_\_ (2017) 「全国オモニ大会」に見る北朝鮮の家父長制の変遷」 『ジェンダーとセクシュアリティで見る東アジア』勁草書房, p.140.
- 前田はし(2014) 「ロシアの戦争記念碑における兵士と母親イメージ——国民統合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 『地域研究』京都大学地域研究統合情報センター, p.39.
- マーティン・メイリア(1997) 『ソヴィエトの悲劇 下巻 ロシアにおける社会主義の歴史 1917-1991』草思社, p.33.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

<要旨>

総連の機関紙に現われる「チマ・チョゴリ」の表象  
—1950年代から1960年代を中心に—

吳恩英

総連の機関紙は、在日朝鮮人に北朝鮮の情勢や文化などを伝達する役割をしていた。北朝鮮の男女平等権、そして「文盲退治運動」により、在日朝鮮人の女性も教育を受けるようになり、社会進出を勧められていた。総連の傘下の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は、祖国の建設のために組織の活動に積極的に参加するように求められていた。しかし、1950年代後半から男女平等権を拡大していきつつも、以前より「母性」、「母」の役割が強調された。つまり、家父長制に戻り、未来の共和国民となる子どもを立派に育てることである。その反面、「父性」「父」は「不在」化されていく。こうしたプロセスの中で、「朝鮮の女性」らしい姿形も奨励されていたが、女性の朝鮮服、「チマ・チョゴリ」に「民族性」「祖国」「愛国心」も結び付けられ、「女性」「母」は偉大で英雄的な人物として表象されていた。

Representation of Chima-jeogori in the Bulletin of Chongryon (1950s-1960s)

Oh, Eun-Young

The bulletin of Chongryon played a vital role in conveying the circumstances and culture of North Korea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Under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n movement for gender, equality, and literacy, Japan's female Korean residents were encouraged to receive education and seek employment in society. The Democratic Korean Women's League in Japan, which was affiliated to Chongryon, was invited to join Chongryon's activities to promote the values of their homeland. Since the late 1950s, however, the role of "motherhood" has become prominently emphasized despite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This indicated a return to patriarchy, with women's primary roles effectively reassigned to the raising of children—the future of the nation republic. On the other hand, the roles of "fatherhood" and "father" became less pronounced. In this process, projecting an appearance that emphasized the identity of "Korean women" was encouraged. The *chima-jeogori*, a Korean women's traditional dress, was connected to ideals of "ethnic consciousness," "homeland," and "patriotism" and represented "women" and "mothers" as great heroic figures.